

“현대차 50만원 갈까봐 샀다”… 차포자도 뛰어든 ‘포모 장세’

〈자동차 투자포기〉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대차, 로봇·피지컬AI 기대에 질주
아틀라스 공개 등에 재평가 불붙어
시총 100조 눈앞 코스피 최고 행진
개인 1주일 9800억 순매수 불타기
지수 최고인데 내 종목 소외감 커져

“이러다 현차(현대자동차) 주가가 진짜 50만원 되면 배 아파서 어쩌나 싶어서 오늘 43만원에 샀어요.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너무 불안해서…”

“원래 좀 갖고 있었는데, 가장 없는 내 주주 팔아서 ‘볼타기(오를 때 추가 매수)’ 들어갔습니다.”

인공지능(AI) 기반 모빌리티·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로 현대자동차 주가가 날아 올랐다. 시가총액은 100조원을 바라보며, 단숨에 3위(98조2837억원)로 뛰어났다. 현대차가 있곤 코스피는 19일 4904.66에 마감했다. 1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이다. 코스피 5000선까지는 어느새 1.94%만 남았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오르자, 주가가 너무 급등해 반도체 주식 투자를 포기했거나 다른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은 “코스피는 사상 최고라는데, 내가 가진 주식은 왜 안 오르냐”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주식 ‘포모(FOMO·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를 호소하거나 “지금 사도 되느냐”고 묻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CES 2026 현대차그룹 미디어데이에서 보스톤다이나믹스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왼쪽)’과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 공개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나”고 묻는 투자자도 늘어나고 있다.

◆ ‘피지컬 AI’ 업고 달리는 현대차

지난해 76% 올라 세계 주요국 증시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코스피 지수는 올해들어 16%가 뛰어 주요국 중에서 압도적인 상승률 1위다. 코스피 상승의 일등 공신은 시가총액 쓰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증시를 밀어 올리고 있는 것이다.

1월 전반기 시장을 주도한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24.52%, SK하이닉스 주가는 17.36% 치솟았다.

후반기는 현대차가 주도하고 있다. 상승률은 반도체보다 가파르다. 올해 들어

61.89% 뛰었다.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29일 6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7일 70조원, 13일 8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이 속도라면 100조원 돌파도 머지않았다. 증권가에선 최근 주가 급등의 촉매로 ‘로봇’을 꼽는다.

현대차와 자회사 보스톤다이나믹스가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일반 공개한 아틀라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증권가에서는 현대차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구글 답마인드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시선을 끌었다. 글로벌 정보통신 전문매체이자 CES 공식 파트너인 C넷은 이번 CES 2026의 ‘베스트 로봇’으로 아틀라스를

선정하기도 했다. 일본의 로봇 전문 매체인 로봇스타트도 “현대차그룹이 가고자 하는 로봇 생태계는 인공지능(AI) 로봇의 대량 생산과 사회적 구현을 가능하게 해 기술 측면뿐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엔비디아 GPU(그래픽 처리 장치) 5만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만 약 6조원으로 추정되며, 현대차가 발표한 ‘국내 125조원 투자 계획’ 중 71%(약 89조원)가 미래 신산업·연구개발(R&D)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자율주행·로봇·SDV 등 ‘피지컬 AI’ 기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해외에서도 자동차·로봇·AI가 한데 묶이는 흐름이 뚜렷하다. 로이터는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스스로를 ‘피지컬 AI 회사’로 규정하며 로보 택시·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계획을 함께 내놨다고 전했다. 엔비디아 등도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전통 완성차로 분류되던 현대차가 ‘로봇 모멘텀’을 갖춘 종목으로 재해석되며 목표 주가도 상승당되는 흐름이다.

김귀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로보틱스 가치를 반영하고 자율주행 전략 변화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한다”면서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올렸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구글과 엔비디아가 피지컬 AI의 하드웨어 파트너사로 보스톤다이나믹스를 선택한 이유는 현대차·기아의 대량 생산 능력과, 밸류체인(가치사슬), 생산공장의 행동 데이터셋(데이터 모음) 때문”이라며 현대차의 목표가를 65만원으로 상향 제시했다.

◆ 거세지는 ‘포모’, 현대차에 몰린다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1주일(12일~19일) 동안 현대차를 9800억원어치 순매수하는 등 불타는 주가에 오히려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 순매수 1위다. 올해들어 9일까지만 해도 개인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현대차는 순매수 순위에 없었고, 1380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과거 현대차에 대한 개인들의 순매수가 몰렸던 날은 현대차 주가가 급락하는 국면에서 ‘저가 매수’하려는 심리가 컸던 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주가가 오를수록 순매수가 더욱 강하게 몰리고 있다. 주가가 급등하는 국면에서 아직 못 산 이들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서둘러 매수 행렬에 동참하는 전형적인 포모 장세의 모양새라는 게 여의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기금형 퇴직연금’ 임박… 수익률 개선 기대

노사정 TF 공감대… 이달 내 큰 틀 합의
적립금 459조, 77% 보장형 쏠림 저수익
전문가 운용 확대, 직접운용 선택권 유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자금 운용의 복잡함을 이유로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렸던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수익률 개선 전망도 나온다.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제도도 계속 운영될 전망으로, 가입자는 투자성향에 맞게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9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도 개선 방향이 어느정도 제시된 만큼, 이달 내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기금형 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는 달리, 가입자의 적립금을 기금 형태로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 전문가가 기금을 관리하는 만큼 가입자가 신경 쓸 부분이 적고, 안정성과 수익률도 양호하다. 미국·호주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퇴직연금 적립액의 80% 이상이 기금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논의가 활성화한 것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액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익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운용수익률이 높은 ‘기금형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시스

서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42개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459조5000억원이다. 2024년 말의 431조7000억원에서 3분기 만에 약 278조원(6.4%) 늘었다. 업권에서는 오는 2050년부터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이 국민연금 적립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체 적립금의 77.1%는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됐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운용사의 원리금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 평균은 연 3.22%(DB형 3.46%·DC형 3.15%·개인형 IRP 3.05%)다. 같은 기간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1년 수익률 평균인 12.43%(DB형 7.69%·DC형 15.55%·개인형 IRP 14.04%) 보다 크게 낮다.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보장형 수익률을 앞질렀음에도 적립금 대부분이 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은 퇴직연금 운용 시 상품 선택의 어려움과 가입자의 무관심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주식·펀드·채권 등 투자상품에서 운용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투자 지식이 부족한 가입자라면 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 TF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에도 개인의 선택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에 가입하는 가입자가 기존 퇴직연금 제도와 다양한 기금형 퇴직연금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기금 운용을 공공기관이 맡을 지, 민간 기관에 맡길 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공공기관이 기금 운용을 맡게 되더라도 민간 금융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한 법령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기존 운용기관에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큰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던 만큼, 기존 운용기관 사이에서도 기금형 도입을 사실상 확실시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면서 “퇴직연금 시장은 장래성이 큰 시장인 만큼 운용기관들도 기금형 도입에 대비하고 있고,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는 대로 대응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오픈AI, ‘최후의 수단’ 광고도입 꺼냈다 月 8달러 ‘챗GPT 고’ 글로벌 확대 출시

IPO 앞두고 수익화 전략 본격화
무료 비중 높아 광고로 매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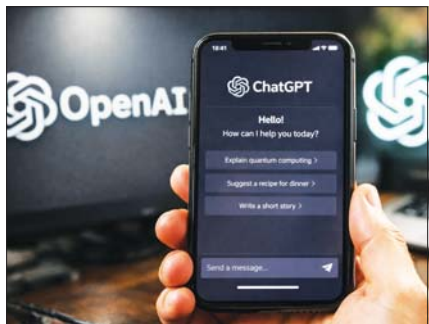
오픈AI가 챗GPT에 광고를 도입하고 월 8달러(약 1만5000원) 수준의 저가 요금제인 ‘챗GPT 고(Go)’를 전 세계로 확대 출시한다.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과거 광고 도입을 “최후의 수단”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로, 올해 예정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픈AI는 ‘챗GPT 고’를 출시하고 기존 유료 요금제인 ‘플러스’ (월 20달러)의 절반 이하 가격에 제공한다.

챗GPT 고는 무료 버전보다 메시지 및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한도가 10배 높고 최신 모델인 ‘GPT-5.2 씽킹’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답변 과정에서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한다. 광고는 멕시코 요리법을 물으면 핫소스 광고를 보여주는 식으로 대화 흐름에 맞춰 노출될 예정이다.

오픈AI가 자존심을 굽히고 광고 시장에 뛰어든 배경에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과 구글과의 치열한 경쟁이 있다. 챗GPT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WAU) 8억 명을 돌파했으나, 무료 이용자 비중이 높아 수익성 개선이 더뎠다.

반면, 경쟁자인 구글은 최근 ‘제미니 3’를 출시하며 클라우드 용량을 묶어 파는 등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컴



오픈AI의 생성형 AI 챗봇 챗GPT.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퓨팅 파워 확충을 위해 자체 매출 확대가 절실한 오픈AI 입장에서 광고 도입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셈이다.

서비스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오픈AI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내놨다. 광고가 챗GPT의 답변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든 광고는 답변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8세 미만 미성년자 계정이나 정치, 건강, 정신 건강 등 민감한 주제와 관련된 대화에는 광고를 노출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자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판매하지 않겠다는 점도 명시했다.

오픈AI는 최근 슬랙(Slack) CEO 출신인 데니스 드레서를 최고매출책임자(CRO)로 영입하며 본격적인 수익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SDS, LG CNS 등 대기업과 협력해 기업용(B2B)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광고 도입과 저가 요금제 출시는 AI 기술 고도화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고, 성장 전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오픈AI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김서현 기자 seoh@